

# 남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연구

이 정 미 · 조 진 숙\*\*

경원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과정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Image of Black Dress for Men

Jung-Mi Lee · Jean-Suk Cho\*\*

M. A.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University\*\*

(2007. 4. 25. 접수, 2007. 7. 13. 채택)

### Abstract

Black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fashion than other colors. In general, black was regarded as a color of negative images. However, as people have recognized the aesthetic value of black color, they have expressed unique and various images of black through the medium of clothes.

This study was based on both theory research and actual survey, where survey sheets were distributed to collect data. For data analysis, SPSS 10.0, a statistics software, was used, and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test, and Duncan test were adopted and analyze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08 men over 20 in Seoul,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other areas for two months from May 20, 2005 to July 25, 2005.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Dignity was the mostly cited image of black color among men followed by modernity, sorrow, feminineness, abstinence, and sensuality.

Second, Men showed different responses according to their age. In sum, men more strongly recognize abstinence and sensuality in black dress as they become older. Marital status significantly affected men's recognition of black dress in terms of abstinence and sensuality. Abstinence was more strongly recognized by married men than single men. In addition, married men pointed out sensuality of black dress more frequently than single men. In short, married men tended to recognize abstinence and sensuality more easily than single men. Education level clearly affected men's recognition of dignity, modernity, and abstinence in black dress. In sum, as men got higher education, they tended to increasingly recognize dignity and modernity in black dres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proved that black dress has unique aesthetic values and reflects various imag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Key Words:** Dignity(위엄성), Modernity(모던성), Sorrow(비애성), Feminineness(여성성), Abstinence(금욕성), Sensuality(관능성)

---

\*Corresponding author ; Jean-Suk Cho

Tel. +82-11-718-8501, Fax. +82-2-760-4484

E-mail : jeansc@hanmail.net

## I. 서론

검은색은 색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상 이었고, 다른 어느 색상보다도 패션의 역사를 지배해온 주된 색상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색채로 인식되었다. 중세 이래로 기독교 미술에서 검은색은 악(evil)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사탄의 블랙’이라 불리 운다. 그러나 검은색은 성직자의 금욕적인 복장과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성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검은색은 금욕적 측면과 음란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up>1)</sup>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喪中에 검은색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검은색이 상을 상징하는 색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애도의 의미를 지녔던 검은색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喪에 대한 중요성이 경시되면서 喪服 또한 이전보다는 그 중요성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슬픔보다는 분노, 공격, 반항을 나타내는 색채가 되었다. 반면 검은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검은색이 생명의 뜻을 지닌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어두움에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서적 반응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검은색은 생명의 근원인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sup>2)</sup> 그것은 간절히 기원되어지는 검은 구름과 새로운 발생을 약속하는 검은 진흙과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밤의 욕망과 풍부한 육체적 사랑과의 연관도 있었다.<sup>3)</sup> 이렇듯이 생명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대량생산되면서 검은색은 자연의 색조보다는 인공적 창조물들과 더 잘 어울리는 도시환경의 색상이 되었고, 전 세계가 선호하는 색상이 되었다.<sup>4)</sup> 검은색 그 자체는 음산하지만 만약 배색, 혹은 다른 색채를 악센트로 한 배경으로서 사용하면, 이 색은 멋진 것을 만들어낸다.<sup>5)</sup> 1990년대 이후 남성복 소비자들의 욕구도 개성화 다양화 하면서 남성들도 여성에 못지않은 트렌디한 감각을 즐기는 남성소비자 층이 늘어나고 있다.<sup>6)</sup> 검은색은 최근 남녀 모두에게 트

렌디한 색상경향으로 2006년 영화예술 시상식에 등장한 유명 남성연예인들이 상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정장에 흰색의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하였다. 이는 지배적인 문화규범보다는 트렌디한 감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남성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미경, 이현희<sup>7)</sup>는 파울클레의 회화를 남성복 드레스 셔츠와 진 팬츠에 응용하여 패션 테마의 제안과 함께 컴퓨터 CAD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박옥련, 이현지<sup>8)</sup>는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실루엣과 소재, 색채,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에서 남성복의 여성화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채선미<sup>9)</sup>는 베르사체 남성복에 사용된 문양 표현방법은 매 시즌 하나의 주제가 담긴 패턴을 선정하여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김영인, 조주연, 추선형<sup>10)</sup>은 국내 남성복 브랜드에서 활용되는 색채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남성복은 기본 색채군의 제품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캐릭터 캐주얼 마켓의 의류들과 아이템으로는 상의아이템이 다양한 색채 기획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김경화<sup>11)</sup>는 2001년과 2002년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보보스 남성복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고전으로의 복귀, 믹스 & 매치, 고급스러움의 은폐, 스포츠 요소 가미, 자연친화적 경향, 장발의 부활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추선영<sup>12)</sup>은 남성복은 시즌별 판매 색채의 분포가 구분되며, 정장, 캐릭터 & 캐주얼 마켓의 판매색채 분포가 다르다고 하였다. 김병옥, 이상례<sup>13)</sup>는 현대 남성복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Borderless현상은 의복의 여성화 현상과 성적 이미지 부여 등이라고 하였다. 김혜경<sup>14)</sup>은 1960년대 미국 남성복식에 보여진 인도의 영향은 네루 스타일의 복식과 인디언 샌달, 주얼리, tie-dye와 madras로 의복, 직물, 액세서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효진, 류근영<sup>15)</sup>은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복 소재는 여성복 소재에 비해 소재범위가 한정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이를 탈피하여 새로운 미의식이 표출되는 다양한 소재가 쓰였다고 하였다. 이금희, 유송옥<sup>16)</sup>은 휴



<그림1> Fresco from the Ruovo tomb. 기원전 5세기경, Museo Nazionale

처리리스트 남성복 선언문과 그에 대한 디자인 연구에서 휴처리리스트 추구자들은 남성복식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앞서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미래로 주도해가는 새로운 미로서 혁신적인 복식을 주장하였다. 강경자, 임지영<sup>17)</sup>은 의복색이나 넥타이색, 그리고 넥타이 무늬는 남성복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로서, 또한 이들 조합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과거의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유행에 의한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남성복 소비자들의 욕구도 개성화, 다양화 하면서 형태나 색상, 소재에서 다양한 미의식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복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남성복 색채연구가 계속되어야 보다 상품성이 있고 유행 감각을 반영한 색채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트렌드 색인 검은색을 테마로 하여 남성들의 검은색의상의 이미지 지각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지각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복 마켓의 색채기획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에 따른 색채기획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성복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II. 검은색 의상의 역사적 이미지

### 1. 고대 · 중세 시대

고대 그리스의 키톤(chiton)이나 페플로스(peplos)가 원래 흰색을 기본으로 한 것인데 비해 히마티온(himaton)의 색은 여러 가지로 파랑, 장미색, 자색, 흰색, 검은색 등이 쓰였다.<sup>18)</sup> 그리스에서 장례 행렬은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였고 로마의 귀족은 평민이 평상복으로 착용한 토가 풀라(Toga Pulla)를 상복으로 착용하였다.<sup>19)</sup> 로마에 살던 원주민인 에트루리아(Etruria)인은 상을 당했을 때에 검은색 테베나(Tebenna)를 사용하였다. 테베나는 <그림1>과 같이 튜닉 위에 걸치는 케이프로 로마에 전해져 대표적인 의상인 토가가 되었다.<sup>20)</sup>

본래 로마민족은 직물에 관해 무 장식주의로 공화정 말기까지는 시민복인 토가도 흰색과 크림색이 주였다. 그러나 염색 기술의 발달과 아울러 의복색이 직업을 표시하게 되어, 청색은 철학자, 녹색은 의사, 백색은 점성술사, 검은색은 신학자의 의복색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로마 시대의 검은색은 종교적 의미가 강했으며, 모직물 그대로의 침침한 검은색은 서민의 색이었다.<sup>22)</sup> 중세의 검은색은 전통적인 상(喪)의 상징이었으며, 중세 말까지 노동자 계급은 거의가 검은색을 입었다.<sup>23)</sup> 귀족들에게는 흑양이나 흑담비의 털을 이용한 코트(coat)에서 일부 검은색이 나타

났다.24) 중세시대의 직물은 일반인에게도 면, 마, 모의 소박한 직물이 중심이었고, 궁중에서는 금사, 은사가 강조된 실크 소재의 화려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검은색은 전통적인 상의 색으로 수난일 예배의 색으로 쓰였으며, 녹색은 동방의 3박사에 의해 상징되는 구세주의 색, 적색은 성령부임절의 색, 흰색은 순결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으로 삼았다.25)

## 2.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국가들이 검은색을 패션으로 수용하는 시기는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이었다. 15세기의 버건디 궁정, 15-16세기의 베니스, 16세기의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 19세기의 영국을 통해 알 수 있다.26)

15세기의 버건디 사회는 성공한 상인 계급의 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당시의 상인 모두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였다. 그들의 검은색 의상은 마치 걸치레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게 위엄있고 믿음직한 상인의 성공을 과시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색상이 되었다. 15-16세기의 베니스는 부유하고 혼잡하며 화려하였다. 베니스의 귀족은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달랐기 때문에 검은색은 먼 옛날부터 상인의 색이었고 검정색 토가를 착용했다. 왕이 궁전에서 검은색을 입기 전부터 베니스 상인들



<그림2> Pierre Salmon and Charles VI, 14세기 후반-15세기 초반, 20,000 Years of Fashion

은 검은색을 착용했다. <그림2>, <그림3>과 같이 검은색은 권위적인 교황의 특권에 부족한 위엄과 우아함을 주었으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긴 했지만, 사회에서 부, 지위, 권력을 가진 남성만이 착용하는 제복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27)

16세기의 스페인은 르네상스의 절정기로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의복 색에 있어서 검은색의 유행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스페인 국왕 찰스 5세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었다. 찰스 5세의 개인적인 취향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한 스페인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검은색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기호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1556년 필립 2세가 찰스



<그림3> FRA ANGELICO:Death of Saint Dominic, 15세기 중반,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4> FRANCÔIS CLOUET: Henri II, 1550,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5> ANON: Mary, Queen of Scots, 1575,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6> ISAAC OLIVER : The Three Brothers Brown, 1598, 20,000 Years of Fashion

5세를 계승했을 때 스페인 궁정은 모든 유럽이 선호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국왕 헨리 2세는 스페인 패션을 모방하여 <그림4>와 같이 우아함을 내포하는 검은색 의상을 항상 착용하였다.<sup>28)</sup> 또한 <그림5>와 같이 영국의 메리 여왕도 검은색 의상을 즐겨 착용하였다. 16세기 후반까지 검은색 의상이 스페인 궁정에서 <그림6>과 같이 남녀 공용으로 유행되었을 때, 남자들은 검은색 겉옷의 목이나 소매부분에 흰색 옷이 조금 나오도록 옷을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완전히 검은색 의상이나 동일한 영역의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의상과는 아주 다

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경우로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침울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내면세계는 숭고하고 순수하며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 검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sup>29)</sup>

17세기 네덜란드의 검은색은 스페인 섭정 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때의 검은색은 귀족적인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행정관과 청교도에 의해 국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이들의 의상은 모두 검은색으로 엄숙함의 표본인 신교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었다.<sup>30)</sup>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중



<그림7> VAN DYCK: Henrietta of Lorraine, 1634,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8> G. NETS-CHER: Young Girl, 1660,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9> GERARD TER BORCH: Man in Black, 1673,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10> J. BERAUD:  
Evening party given by the Caillebottes, 1878,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11> Summer suit, Gravures de Modes,  
Bibliothèque Nationale, Cabinet des Estampes, 1875,  
20,000 Years of Fashion

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현세에서의 물질적 만족을 좌시하고 내세 위주의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건한 색상인 검은색의 의상을 소박과 검소의 상징으로 주로 착용하였다.<sup>31)</sup> 최고 전성기의 네덜란드는 루벤스, 할스, 렘브란트 등의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을 길러내게 되었고 이들은 <그림7>, <그림8>, <그림9>과 같이 주로 얼굴을 강조하고, 위엄성을 표현해주는 검은색 옷을 착용한 귀족들을 그렸다.<sup>32)</sup>

### 3. 19세기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 1세의 제1제정까지의 30년은 복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귀족풍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던 시기이다.<sup>33)</sup> 시민혁명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시민에 의한 미가 점차 형성되어 남성복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긴 바지 착용과 색채로 나타났다. 멸시되었던 검은색이 의례와 공공용의 색으로 승격하여 새롭게 권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sup>34)</sup> 19세기 영국의 섭정 시대의 많은 소설가들이 댄디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검은색 의상의 패션을 시작했다. 이는 검은색이 현대적인 주인공의 황폐화된 존재와 세기 자체를 애도하는 시기에 적합한 색이었기 때문이다. 댄디들은 복식을 통해 일반 대중과 구분되는 그들의 정신적인 우월성을 표현했고 이에 검은색과 흰색은 매우 효과적인 색상이었다.<sup>35)</sup> 그들은 의복 색에서 가능한 화려함을 배

제하고 짙은 톤의 색상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영국 신사복 유행의 기본이 되었으며, 후에 전 세계 남성복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sup>36)</sup> 댄디는 단순하고 어두운 검은색 의상을 세밀한 소재와 재단의 꼼꼼함으로 미의 성격을 변화시킨 나르시스트였다. 영국의 댄디즘은 파리의 사교계의 남성복에 큰 영향을 미쳐 남성들의 의상이 간소해지고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과 함께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의상은 밝고, 주로 흰색이었던 탓에 검은색은 흰색이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에 반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여겨졌다.<sup>37)</sup> 19세기 중반에 보들레르는 댄디즘에 매료되어 정신적인 존엄성과 유미 정신을 더했으며, 특히 그는 검은 연미복에 대해 애착을 가졌다.<sup>38)</sup> <그림10>과 같이 검은색은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분리시켰고 정치와 사업에서의 남성들은 단조롭고 수수하게 재단된 엄숙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또한 <그림11>과 같이 국가의 우두머리와 장관들은 중세 정치가들의 화려한 의상과는 다른 미적으로 엄격한 의상을 착용했다.<sup>39)</sup>

## III. 연구방법

### 1. 용어정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에 사용된 검

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본 연구자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에 관한 선행 연구<sup>40)</sup> 결과인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 비애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는 본 연구자가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일에 걸쳐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검은색 의상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2개만 써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714개의 평가용어를 수집한 후, 이미지 범주화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조로 하여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를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 비애성 등의 6개의 이미지로 범주화 하였다. 각 이미지별 용어 해설은 다음과 같다.

- 여성성; 우아하고 세련되며 기품이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 고상한 미가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 위엄성; 대상이 엄숙하고 장중하며 고귀한 기품이 있고, 엄격하며 숭고한 존엄을 가질 때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 모던성; 장식을 최소화 하여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고 간결하며 깨끗함이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 금욕성; 윤리상, 철학상으로 성욕을 비롯하여 명예, 이익, 지위 등 세속적인 욕망을 억압하거나 없애으로써 도덕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관능성; 성에 대한 갈망이나 열정, 혹은 성에 대한 친화력을 뜻한다.
- 비애성;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에 대해 고뇌와 슬픔에 머무르게 되는 감정이 비애성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내용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test 및 Duncan test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표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           | 빈도  | 백분율 (%) | 누적비율 (%) |
|-----------|-----------|-----|---------|----------|
| 연령        | 24세 이하    | 105 | 17.3    | 17.3     |
|           | 25-34세    | 190 | 31.3    | 48.6     |
|           | 35-44세    | 189 | 31.1    | 79.7     |
|           | 45세 이후    | 124 | 20.3    | 100.0    |
|           | 합계        | 608 | 100.0   |          |
| 결혼여부      | 미혼        | 221 | 36.3    | 36.3     |
|           | 기혼        | 387 | 63.7    | 100.0    |
|           | 합계        | 608 | 100.0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 97  | 15.9    | 15.9     |
|           | 전문대 졸업이하  | 70  | 11.5    | 27.4     |
|           | 대학교 졸업이하  | 340 | 55.9    | 83.3     |
|           | 대학원 재학이상  | 101 | 16.7    | 100.0    |
|           | 합계        | 608 | 100.0   |          |
| 거주지역      | 서울·경기     | 407 | 66.9    | 66.9     |
|           | 기타        | 201 | 33.1    | 100.0    |
|           | 합계        | 608 | 100.0   |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조사는 2005년 5월 20일에서 7월 25일 까지 2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617부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최종 60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은 25-34세가 190명 (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35-44세가 189명(31.1%), 45세 이후가 124명(20.3%), 24세 이하가 105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387명(63.7%), 미혼이 221명(36.3%)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하가 340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원 재학이상이 101명(16.7%),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97명(15.9%), 전문대 졸업이하가 70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도가 407명(6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가 201명(33.1%)으로 서울, 경기도가 기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 IV. 결과분석 및 논의

남성을 대상으로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남성의 검은색 의상 이미지 지각

남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을 밝히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과 같다.

<표2>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모던성, 비애성, 여성성, 금욕성, 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성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위엄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금욕성과 관능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남성들은 집단이나 조직생활과 같은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표2> 남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 이미지    | 위엄성  | 모던성  | 비애성  | 여성성  | 금욕성  | 관능성  |
|--------|------|------|------|------|------|------|
| 평균     | 3.70 | 3.44 | 3.22 | 3.05 | 2.88 | 2.83 |
| t-test | A    | B    | C    | D    | E    | E    |

알파벳은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평균점수 순으로 표시함.

<표3>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 이미지 | 연령          | 24세 이하<br>(n=105) | 25-34세<br>(n=190) | 35-44세<br>(n=189) | 45세 이후<br>(n=124) | F-value |
|-----|-------------|-------------------|-------------------|-------------------|-------------------|---------|
|     | 여성성         | 평균                | 2.98              | 3.04              | 3.17              |         |
| 위엄성 | 평균          | 3.75              | 3.62              | 3.75              | 3.73              | 0.754   |
| 모던성 | 평균          | 3.39              | 3.48              | 3.37              | 3.51              | 0.685   |
| 금욕성 | 평균          | 2.58              | 2.84              | 2.95              | 3.09              | 4.965** |
|     | Duncan test | B                 | A                 | A                 | A                 |         |
| 관능성 | 평균          | 2.65              | 2.80              | 2.99              | 2.75              | 2.789*  |
|     | Duncan test | B                 | AB                | AB                | A                 |         |
| 비애성 | 평균          | 3.29              | 3.15              | 3.24              | 3.24              | 0.432   |

\*p<0.05, \*\*p<0.01, \*\*\*p<0.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의복 스타일은 권위적 외모 때문에 성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된다.41)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주로 검은색 계열의 연미복이나 신사복을 착용한다. 한 예로 권위의 상징인 법원의 법관들의 의복색도 주로 검은색이며 대학의 학위 가운데 검은색이 많다. 따라서 남성들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위엄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엄성이나 모던성에 비해 관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성들은 검은색 의상을 성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 보다는 권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훨씬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남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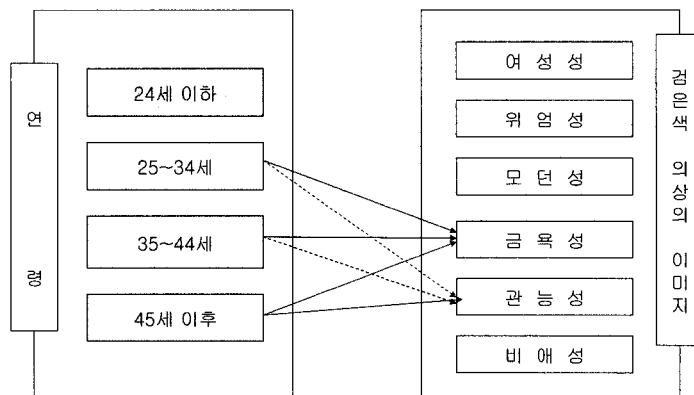
### 1)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ANOVA 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와 같다.

<표3>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금욕성과 관능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욕성은 25-34

세, 35-44세, 45세 이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은 45세 이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34세, 35-44세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금욕성과 관능성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지각하였다. 금욕성은 절제와 관련이 있으며, 관능성은 성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이다. 금욕성과 관능성은 정신과 본능의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이러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칼 융(C. G. Jung)은 인간의 내면에는 정신과 본능의 상반되는 개념이 상황에 따라 슬라이드 저울처럼 어느 한 쪽에 기울어졌다가 또 다른 한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42). 그러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므로 인생의 희노애락과 관련된 금욕성과 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위엄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평균 점수값이 3.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층이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로 위엄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2>와 같다.



—————> Duncan test 결과 A로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를 표시함  
 - - - - -> Duncan test 결과 AB로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를 표시함

<그림12>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표4> 남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 이미지 \ 결혼여부 | 미혼<br>(n=221) | 기혼<br>(n=387) | t-value   |
|------------|---------------|---------------|-----------|
| 여성성        | 3.01          | 3.07          | -0.644    |
| 위엄성        | 3.66          | 3.72          | -0.743    |
| 모던성        | 3.46          | 3.43          | 0.343     |
| 금욕성        | 2.66          | 3.00          | -3.838*** |
| 관능성        | 2.71          | 2.89          | -2.017*   |
| 비애성        | 3.20          | 3.23          | -0.366    |

\*p<0.05, \*\*p<0.01, \*\*\*p<0.001

2)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남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4>과 같다.

<표4>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는 금욕성, 관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욕성은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 또한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금욕성과 관능성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카이저 (Susan B. Kaiser(1990))는 결혼은 개인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혼을 함으로써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육체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

남성의 경우, 미혼 남성보다 정신과 본능에 관련된 이미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3>와 같다.

참고로 연령과 결혼여부의 경우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연령과 결혼여부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3)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ANOVA 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은 대학원 재학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은 대학원 재학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하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욕성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에서 학력이 증가 할수록 높게 지각하였다. 교육의 증가는 새로운 개념이나 상징, 일반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이해력을 넓힐 수 있다<sup>43)</sup>고 한다. 따라서 학력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유행과 관련된 위엄성과 모던성,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금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관능성은 모든 학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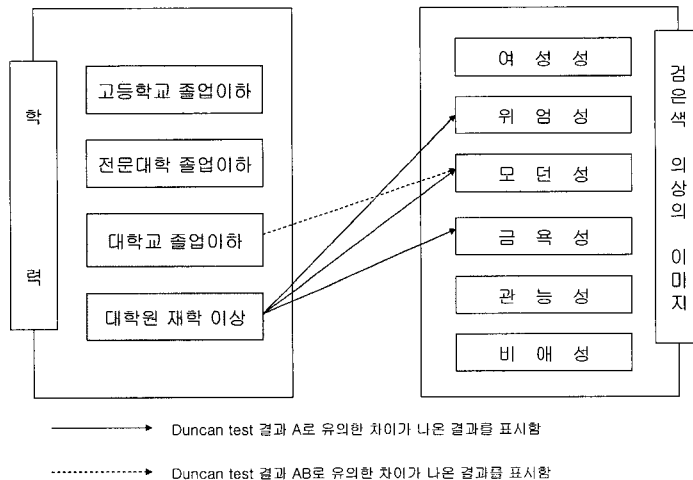
<그림13> 남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표5>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 이미지 \ 학력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n=97) | 전문대학 졸업 이하 (n=70) | 대학교 졸업 이하 (n=340) | 대학원 재학 이상 (n=101) | F-value |
|----------|-------------|-------------------|-------------------|-------------------|-------------------|---------|
|          |             |                   |                   |                   |                   |         |
| 여성성      | 평균          | 3.03              | 2.97              | 3.04              | 3.16              | 0.490   |
|          | Duncan test | B                 | B                 | B                 | A                 |         |
| 위엄성      | 평균          | 3.61              | 3.50              | 3.69              | 3.98              | 4.200** |
|          | Duncan test | B                 | B                 | B                 | A                 |         |
| 모던성      | 평균          | 3.31              | 3.20              | 3.46              | 3.64              | 3.401*  |
|          | Duncan test | B                 | B                 | AB                | A                 |         |
| 금욕성      | 평균          | 2.86              | 2.81              | 2.80              | 3.19              | 3.647*  |
|          | Duncan test | B                 | B                 | B                 | A                 |         |
| 관능성      | 평균          | 2.93              | 2.84              | 2.83              | 2.72              | 0.634   |
| 비애성      | 평균          | 3.10              | 3.26              | 3.21              | 3.36              | 0.901   |

\*p<0.05, \*\*p<0.01, \*\*\*p<0.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그림14>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

집단에서 3.0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모든 학력집단에서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로 관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4>와 같다.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서 문헌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남성들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결혼여부,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성 608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은 위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모던성, 비애성, 여성성, 금욕성, 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위엄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 금욕성과 관능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고대, 중세에서는 검은색이 喪, 죽음을 의미하지만 르네상스와 19세기에 와서는 검은색이 위엄, 우아, 권위 등을 상징하였다. 특히 19세기의 정치와 사업을 하는 남성들은 단조롭고 수수하게 재단된 엄숙한 검은 의상을 입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19세기까지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와 설문조사 후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를 비교해 볼 때, 모던성, 관능성 등의 이미지가 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남성과 같이 현대의 남성도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위엄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차이에서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는 금욕성과 관능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욕성은 25-34세, 35-44세, 45세 이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은 45세 이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34세, 35-44세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금욕성과 관능성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는 금욕성, 관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욕성은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 또한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금욕성과 관능성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차이는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은 대학원 재학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은 대학원 재학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하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욕성은 대학원 재

학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에서 학력이 증가 할수록 높게 지각하였다.

이상과 같이 검은색 의상은 독특한 미적특성으로 인하여 남성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 결혼여부, 학력 등에 따라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점차 패션에 민감해져가는 남성들을 위한 의상 디자인 색채기획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성 패션산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 대상자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서울경기지역에 다소 많이 치중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참 고 문 헌

- 1) Lurie Alison, 유태순 역 (1986). *The Lanaguage of Clothes*. 서울: 경춘사, p.176.
- 2) Wilson Elizabeth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186.
- 3) Harvey John (1996). *Me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2.
- 4) Wilson Elizabeth (1985). Op. cit., p.187.
- 5) Maitland Graves, 배만실 역 (1982). *디자인과 색채*. 서울: 이대출판사, p.272.
- 6) 김영인, 조주연, 추선형 (2004). 국내 남성복 브랜드의 세분 시장별 활용색 특성. *한국 색채학회지* 18(1), p.42.
- 7) 어미경 (2005). 파울 클래의 회화를 응용한 남성복 디자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4), p.386.
- 8) 박옥련, 이현지 (2004).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8(2), p.374.
- 9) 채선미 (2004).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p. 187.
- 10) 김영인 (2004). 국내 남성복 브랜드의 세분

- 시장별 활용색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1), p.42.
- 11) 김경화 (2003). 패션에 나타난 보보스(Bobos)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2), p.48.
  - 12) 추선영 (2003). 국내남성복 브랜드 기본색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7(1), p.76.
  - 13) 김병옥, 이상례 (2003). 현대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p.479.
  - 14) 김혜경 (1999). 1960년대의 네루 스타일. *한국 의류학회지* 23(4), p.601.
  - 15) 이효진, 류근영 (2000).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p.820.
  - 16) 이금희, 유송옥 (1997). 휴처리스트 남성복 선 언문과 그에 대한 디자인. *복식* 32, p.146.
  - 17)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p.767.
  - 18) 丹野 郁 (1979). *서양복식발달사 고대 중세편*. 동경, p.75.
  - 19) Harvey John (1996). Op. cit., p.23.
  - 20)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79-80.
  - 21) 장문호 (1977). *복식미학*. 서울문화사, pp.120.
  - 22) 블랑쉬 페인, 이종남 외 역 (1965).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p.115.
  - 23) 만리오 부르자틴, 이수균 역 (1996). *색이론 역사를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p.50.
  - 24) 정혜선 (1997).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p.5.
  - 25) 장문호 (1977). *복식미학*. 서울문화사, pp.121.
  - 26) Harvey John (1996). Op. cit., pp.41-42.
  - 27) Harvey John (1996). Ibid, pp.63-69.
  - 28) Laber James (1982).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88.
  - 29) Lurie Alison (1986). Op. cit., p.177.
  - 30) Laber James (1982). Op. cit., p.108.
  - 31) Lurie Alison (1986). Op. cit., p.178.
  - 32) 문혜정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5
  - 33) Russell D.A.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p.306.
  - 34) 조규화 (1991).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343.
  - 35) Wilson Elizabeth (1985). Op. cit., p.188.
  - 36) 송명희 (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1, p.33, pp.43-46, pp.54-57, p.67.
  - 37) Harvey John (1996). Op. cit., p.156.
  - 38) 이미숙 (1991). Baudelaire의 댄디즘에 관한 연구-복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3.
  - 39) Hollander Anne (1993). *Seeing Through Cloth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65.
  - 40) 이정미, 조진숙 (2005).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2(1).
  - 41) Susan B. Kaiser, 김순심외 3인역 (199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p.324,
  - 42) 율란디아코비, 이태동 역(1992). *칼럼의 심리학*. 서울: 성문각, pp.97-98.
  - 43) Susan B. Kaiser (1990). Op. cit., p.427.